

인생의 이치

작성자 : 김슬기(부산 주향기로운 교회 청년부)

작성일 : 2012. 03. 02.(금)

내 사랑하는 자들에게
인생을 부여한 나 예수가 이르노라.
너희 인생을 창조하였기에
또한 사랑하기에 이르는 말이니
가슴에 새겨
어렵고 힘들 때에 힘을 얻기를 바란다.

각인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
나 예수의 말을 믿고 시인하는 자에게
나 예수의 역사가 임할 것이며
사랑이 임할 것이며
또한 지킬 것이다.
인생의 이치를 깨달아라.
큰 것을 얻기 위하여
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
몸부림치는 너희들아.
또 내게 간구하는 너희 인생아.
나의 신부야.

좋은 것, 큰 것들은
결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.

또한 너희의 생각하는 바대로
단 기간에 이루어지지도 않는다.
너희의 기대대로
순식간에 닥쳐오지 않는다.

간절함의 에너지,
그것이 기도가 되어 내게 바쳐지고
기다림 속에 변하지 않는
너희 마음과 식지 않는 소망이
내게 바쳐지며
그로 인해 내게 더 나아오는
너희 자신이 내게 바쳐지므로
이것에 합이 이루어져
진실 된 마음이 되고
그 마음을 보고서 나 예수는 역사한다.

너희가 이해하기 쉽도록
예를 하나 들어주마.

어떤 물건을 얻기 위하여
집 앞 슈퍼에 다녀오는 것과
20여분 남짓한 대형마트에 다녀오는 것을 비교해 보자.

집 근처 슈퍼에 간다면
살 수 있는 물건에 제약이 있지만
빨리 다녀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
즉, 원하는 것을 빨리 얻을 수는 있으나

다양하고 큰 물건들은 얻을 수 없다.

20여분 남짓한 대형마트에 간다면
살 수 있는 물건은 방대하지만
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.
즉,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겠으나
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.

조금 깨달아지느냐.
더 좋은 것을 찾고 원하는 것이
바로 인생, 바로 너희다.
처음에 아무리 만족했던 것이라 할지라도
시간이 지나면 만족함을 잃어버려
더 좋은 것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.

더 나은 것을 얻기를 원했을 때
가슴에 희망과 꿈을 품고서
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했을 것이다.
또한 결단하고 결정했을 것이다.

하지만 그것을 알아라.
더 큰 것을,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
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뒤따른다는 것을.
그 어떤 휘황찬란한 것도
단기간에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.

그러니 조금해 말아라.

기다림의 미덕을 갖도록 하자.
인생이 원하는 만큼의 그 간절함이
에너지가 되고 기도가 되어 내게로 오니
나를 믿지 않는 자들도
내게 전달되는 그 에너지를 받고
그 법칙대로 내가 다 이루어 주지 않느냐.

나는 이치와 법칙의 주 예수다.
어떤 일을 불같이 칼같이 행하기도 하지만
먼저는 그 법칙 안에서 행한다.

다만, 내 사랑 내 신부들이
간절함으로 사랑으로
내게 나아와 기도한다면
나는 그 사랑의 조건으로
그 앞뒤 마음과 행실을 보고서
기도를 들어 주는 그 시각을
더 앞당겨 줄 수는 있다.

그러나 너희가
사망길로 가는 기도를 한다면
나는 들어줄 수가 없다.
그러니 내게 고할 때에
나의 입장을 나의 마음을
먼저 헤아리고 기도한다면
그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.

내가 너희의 기도와 소원을 이루어 주었을 때,
변할 자인지 더 감사하며 내게 나아올 자인지
나는 살피지 않을 수 없다.

그 마음 하나가
사망길과 생명길을 결정하기 때문이다.

너희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는
그 하나하나가 다 조심스럽구나.

하지만 합당한 모든 기도는
때에 따라, 혹은 즉시 들어 주니
기도에 끊임이 없게 하여라.
나 예수가 행한다.

너희가 가장 소원하는 것이
영 휴거라 해도
너희가 육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에
소원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 줄로 안다.
그 모든 일들이
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
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또한 보아라.
가장 최우선으로 품어야 할 것은
나 예수와의 사랑이다.

그 사랑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면
나는 너희에게 해 주지 못할 것이 없다.
하지만 그마저도

이치와 법칙에 따라 행하여 주리니
낙심치 말고 나를 절대 믿어라.

너희 가슴속에 그 어떤 소망보다
나 예수를 향한 사랑의 소망이
더 간절하고 가득하기를 바란다.
사랑한다.